

미래세대, 그들의 마음에 심는 사랑의 씨앗

글, 사진 박성민 목사

/ (사)청년선교 본부장

탈기독교시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는가? 한국교회를 섬겨야 할 미래세대는 회복될 수 있는가?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계셨다. 첫 왕 사울의 실패로 대안이 없어 보이는 때도 하나님은 변방에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락하는 데이터와 상반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곳들과 미래세대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으시며 그 일에 동참할 변방의 다윗과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망이 차오른다.

다음은 이러한 소망의 끝을 내리며 지난 2024년 11월 11일(월)~ 13일(수) 부산 해운대 포럼에서 선언된 New Target 2030 ‘미래세대’선교를 위한 제안이다.

선포 내용과 실천사항(Action Plan)

1. 위급 시 아이들 먼저

현재 미래세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선성을 두는 것이다. 차량 뒷면 유리에 붙이는 스티커에 ‘위급 시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위급 시 우리 아이들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이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에 우선성을 둔 결과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늘렸었다. 이같이 한국 교회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와 위기로 인식한다면 미래세대 선교에 대한 최우선성과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1.1 장기적인 전략과 연합 체제를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상시 운영

미래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는 개교회를 넘어 교단과 지역교회, 선교단체, 전문가, 다음세대 사역자들, 청년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각도의 논의와 경청을 하는 싱크탱크가 상시운영 되도록 한다. 일시적, 단기적 이벤트 사역들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모델 제안 및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합과 투자로 연결되도록 한다.

1.2 ‘청년 인턴선교사 훈련’ 미션 무브먼트(Mission Movement)

한국교회가 미래세대 영적리더들을 집중해서 키워낼 뿐 아니라 선교자원을 양성하도록 청년세대 맞춤 인턴 선교사 훈련을 미션 무브먼트(Mission Movement)로 펼친다.

이를 시행 중인 (사)청년선교의 2+2 인턴선교사 제





도를 보면 선발한 청년인턴선교사 2명을 6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선교지에 파송해 한 지역에서 4명의 청년인턴선교사가 엄선된 지도선교사의 도제식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과 선교를 경험한다. 기존의 단기 선교와 차별점은 '사역이 아닌 훈련'에 우선성을 두는 것이다. 1년의 선교를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청년들이 1년간 엄선된 지도선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열방의 문화와 언어, 관계, 삶을 보고 배우며 성장한다. 이를 위해 현지훈련비 중 50%는 파송단체 혹은 교단 선교부가 50%는 소속 교회와 지인을 통해 펀드레이징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국 교회 미래의 영적리더를 키워내는 투자이다. 이를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등의 미션 무브먼트(Mission Movement)으로 일으키고 함께 매년 1,000명의 청년들을 250여개 지역에 파송한다면 한국교회 청년세대의 영적회복이 근본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고령화되는 한국선교에도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1.3 선교원 설립 운동

지난 2025년 1월 14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시설 공급확대를 위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교회의 주중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돌봄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것을 기회로 한국교회가 과거처럼 지역교회에 다시 선교원을 운영하여 영유아 때부터 기독교 가치관과 성품을 가르치도록 한다. 미래세대 신앙교육의 기초 인프라를 형성할 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인 30·40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도 강화될 수 있다.

2. 어른이 되어주세요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세대와 교사가 그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최근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어른다운 어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래세대는 내가 존경하고 따갈 수 있는 롤모델을 찾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소유나 능력

으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에게 기꺼이 배우고 싶어 한다.

2.1 사회적 책임과 실천 및 다음세대의 참여의 장

미래세대는 공의를 중요시하며, 총체적 진리인 복음이 삶으로 실천되길 원한다. 이에 사회적 책임과 실천 운동을 교단과 한국교회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해가며, 여기에 미래세대가 동참할 기회를 열어준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PBL(Problem/Project-Based Learning)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협업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교수는 코치 역할을 한다.

2.2 기독교 세계관 및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전세대 신앙교육

다수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출석하되 세상의 이야기,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성숙이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 이를 보는 미래세대들은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 복음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 등의 전세대 신앙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한국교회는 가족 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는 신앙교육구조를 더욱 갖추어 세대 간 신앙이 연결될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현대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이 일어나도록 한다.

2.3 직업과 신앙의 연결 (Faith & Work Integration)

및 직업별 네트워킹직장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직업군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확장해가도록 한다. 최근 크사장(크리스천 사장들의 모임), 로기연(로

스쿨기독학생연합회)등 직업별의 네트워킹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4 군의 장교, 부사관의 영적리더십 양성 확대

지금까지 병사들의 세례(침례), 위문 사역에 집중되어 있던 군 선교를 넘어 장교, 부사관의 영적 리더십 양성으로 확대되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입대 병사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장교의 역할이 더욱 증대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리더십을 양성해 가는 것이 군 선교에서 중요한 때이다.

3. 연합 사역에 대한 지원 강화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과 선교단체의 사역의 노하우가 합쳐져 큰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선교단체와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배를 타고 있는 동역자요, 공동운명체이다. 점차 선교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때에 물적, 인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탈 기독교가 가속될수록 연합사역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된다.

3.1 중복투자를 막고, 연합 활성화를 위한 ‘미래세대 사역 정보 플랫폼’

모든 교회, 선교단체가 사역의 A-Z까지 각자 하면 중복투자와 시간, 봉사자의 한계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질이 모두 떨어지게 된다. 각자 자원의 유무, 잘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연합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플랫폼이 부족하다. ‘미래세대사역 플랫폼’을 오프라인/온라인에서 구축하여 콘텐츠와 정보공유가 활발히 일어나면 수고를 줄이고,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온라인 사역단체 ‘교회친구다모여’에서는 실명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찬양사역자 방에는 1,300명, 다음세대 교역자방에는 1,200명, 미디어사역자 방에는 1,100명, 담임목사 방에도 600여 명이 모여 이들 모두를 합치면 5,000명 규모이다. 여기에는 사역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3.2 변방의 다윗을 찾아라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미래세대 선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미래세대 사역이 잘 되고 있는 사역자와 단체를 찾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다.

3.3 지역교회의 연합

중소교회들이 연합하면 대형교회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사)청년선교에서는 전국의 지역교회 80여개가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학군단 사역과 캠퍼스를 함께 섬기고 있다. 개교회 주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이와같은 지역교회간의 소통과 연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한다.

4. 전문성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 양성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MZ 세대들과 MK, PK, 다문화 등 TCK 문화속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인격적인 신앙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전문성있는 미래세대 사역자의 장기적인 양성과 상설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4.1 청년사역자 / 다음세대 사역자 훈련

미래세대를 섬기는 사역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에도 한국교회는 교구와 담임목회자가 되기 전에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미숙함과 기대감 없는 사역을 통해 미래세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세대 전문사역자 양성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미래세대-청년사역자 훈련학교, 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와 사역의 중요성을 사역자에게 고취시키도록 한다.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연(청년사역자훈련학교)등이 있으며, 이러한 청년사역자훈련학교 뿐 아니라 유아, 아동, 청소년 사역자 훈련들이 교단 중심으로 체계적 과정을 마련되도록 한다.

4.2 미래세대 사역자 네트워크

미래세대 사역자 간의 정기적인 교제와 포럼등으로 서로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어 사역자가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4.3 메시지의 회복

미래세대는 여전히 진리에 목말라한다. 위로와 흥미를 넘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초대 교회가 살았던 산상수훈의 삶, 제자도 등을 희석하지 않고 가르치며 교회공동체가 세상에서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메시지의 기준을 낮추지 않도록 한다. 온전한 복음의 전달이 결국 미래세대를 살리는 열쇠이다.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넘어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4.4 TCK(MK)의 잠재력 극대화

한국 TCK(Third Culture Kid: 제3문화 아이들)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현재 2만여 명의 한국 MK들 중 60%인 12,000명가량이 청년/대학생이다. 선교사 자녀들을 중심으로, 외교관, 주재원,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 문화와 문화 사이의 경계에서 자라난 '디아스포라 2세대 한인자녀'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세대와 교회, 열방을 섬기도록 한다.

5. 지도 대신 관계

부모세대들은 미래세대들을 볼 때 불안하고 미덥지 못해 한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의 안내 멘트같은 소리를 하며 영화의 결과를 알려주는 스포일러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함이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한다.(Connection Before Correction!)

5.1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제자훈련

지식적 동의와 정보전달 방식의 제자훈련에서 하나님

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제자훈련으로까지 가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이끄는 영적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쌍방향 소통의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자화는 교재(textbook)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relationship) 안에서 전수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미래세대와의 관계에 늘 깨어있어야 한다.

5.2 미디어, 문화예술과의 연결 활성화

미디어, 문화예술은 미래세대의 언어이다. 그들은 이미지, 영상, 음악, 디자인, 공연, 감성, 경험 중심의 소통 방식에 익숙하고 사고와 마음을 연다. 이들의 언어를 무시해서는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5.3 그래도 소망하라

미래세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기다림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이다. 이 시대와 미래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기를 그분의 약속에 소망의 낮을 내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 ☩

